

판소리 한국 만화, 우루과이도 반하겠네



후원 : (사) 울산광역시산악협회 / (주) 콜핑
6 고상돈 & 콜핑 데날리원정대
산악인의 기상 만고상형 하기를...
취재기간 2016. 5. 30 ~ 2016. 6. 24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 북미 최고봉 도전

대한민국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이 후원하는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가 북미 최고봉 데날리(Denali·6194m) 등정에 도전한다.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원정대는 4일부터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해 오는 13일께 정상 등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미국 알래스카주에 위치한 데날리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만년설 봉으로, 에스키모어로 '가장 높은 산'이라는 뜻을 지녔다. 한때 '맥킨리산'으로 불렸다. 한국에서는 지난 1979년 고상돈·이일교·박훈규씨가 초등했으나 지난 도중 고상돈·이일교씨가 숨졌다. 원정대는 콜핑 창립 33주년과 고(故) 고상돈씨의 넋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을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로 명명했다. 원정대원은 박만영 콜핑 회장과 박훈규 단장을 비롯해 김태훈 원정대장, 서경만 등반대장, 박인숙(식량·기록), 김영민(장비·수송), 조민(회계·의료), 김백중(행정·촬영), 이영준 월간마운틴 이사(기록·촬영)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콜핑은 이번 원정에 필요한 의류와 텐트, 배낭, 암벽구 등 장비 전체를 지원한다. 박만영 회장은 "원정대의 안전한 등반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베트남 비엳젯, 무안공항 취항 설명회



비엳젯 항공 한국 판매대리점 ㈜에비스카이는 최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지역 여행사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국적항공사 비엳젯 무안공항 취항설명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안전 결의대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회장 이송자)는 30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여성 기업주 등 200여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정대(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이혜영씨 장남 병국군 박형기·허정선씨 장녀 건희양=4일(토) 오전 11시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 3층.

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7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화랑공회관 062-224-1800.

종친회

▲김주갑씨 광주·전남종친회 재광 이사회=7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화랑공회관, 문의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지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아동)을 대상 무료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위기까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을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 해외봉사활동자 모집=6월6일까지 선착순 모집(인원 제한). 의료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생필품 전달 및 기타봉사활동 가능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 누구나 가능. 봉사활동 기간과 장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캄프스퉁주 광주진료소. 참여 신청 및 문의는 <희망나무 홈페이지(http://hopetree.kr)> 참여마당 코너 또는 062-675-7118.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수강생=6월10일(금)까지 핸드마사지 및 네일아트 교육, 봉사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 가능, 문의 062-228-1365.
▲광주향교 시민예절교실 무료교육생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문정신 남(여/90세) / 301호 故김의순 남(여/91세)
401호 故이봉래 남(여/85세) / 402호 故홍안순 남(여/85세)
102호 故정미옥 남(여/81세)

만화로 한국문화 알리는 고흥 출신 김금숙 작가

최대 만화축제 몬테비데오코믹스에 작품 전시 프랑스서 활동...4·3사건 등 역사 알리기 앞장

고흥 출신 김금숙 만화가가 우루과이에서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한국만화를 선보이고 있다. 주 우루과이 한국대사관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수도 몬테비데오 시내 소드레 벨리 국립극장서 열린 최대 만화축제 몬테비데오코믹스에서 김금숙(여·45) 만화가 작품을 전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김 작가는 전시회장에서 사인회와 드로잉쇼, 작가와 만남의 시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한국인의 삶과 모습을 붓으로 섬세하면서 대담하게 표현해오고 있는 김씨는 몬테비데오코믹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직접 우루과이를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김 작가는 프랑스에서 유명인사다. 프랑스에서 만화 공부를 시작한 그는 프랑스 한인 신문 '한위클리'와 '프랑스존'에 만화를 연재하고 단행본도 출간했다. 또 '베로니크'와 '할머니', '내 산에 오르기' 등 친구의 죽음과 이산가족, 인연 등을 주제로 한 만화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현세의 '늑대의 피', 박건웅의 '노그리 이야기' 등 국내도서 100여권

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도 맡았다. 그녀의 고향은 고흥이다. 어릴 적 소리꾼이었던 아버지 앞에서 판소리를 귀동냥했다. 이후 판소리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접 판소리를 배우가며 만화책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실제, 몬테비데오코믹스 작가와 만남의 시간 때 김씨는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을 직접 불러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시골에서 '사랑가'를 멎어지게 부르던 소리꾼이었던 김씨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인 1970년대 온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8남매 가족의 삶은 팍팍했다. 1994년 프랑스로 건너간 그녀는 조각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조각을 공부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10년 넘게 해오던 조각 공부를 접었다. 그래서 재료비가 덜 드는 만화를 그리게 됐다. 프랑스에서 만화가로 자리잡은 김씨가 지난 2013년 귀국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판소리' 때문이다. 2010년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김금숙 작가(왼쪽)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시내 소드레 벨리 국립극장서 열린 최대 만화 축제장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민혜성 선생의 판소리 '흥보가'를 듣고 한 달만에 집을 싸 한국으로 돌아왔다. 판소리와 한국 고미술품을 소재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다. 이후 2013년 3월 자신의 사연이 녹아 있는 '아버지의 노래'로 한국에서 데뷔했다.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됐던 '아버지의 노래'는 몽펠리르 만화축제에서 '문화계 저널리스트들이 뽑은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국내에서 판소리 흥보가를 만화로 풀어낸 '고갱이와 떠나는 고전여행 : 판소리 흥보가'를 펴내는 등 판소리를 만화로 녹

인 색다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제4·3사건 68주기를 맞아 올해 4월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지슬' 원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작품은 프랑스어로 번역돼 프랑스 현지에서 출간, 4·3사건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김씨는 또 지난 2014년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위안부 진실을 알리는 '지시 않는 꽃' 전시에서 단편 '비밀'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유명하 전남대병원 교수,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유명하 전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척추통증 분야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척추통증학회학술대회(26~29일)에서 '항암치료로 인한 말초 신경 병증에서의 유전자 발현 변화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 포스터상을 받았다. 이 상은 연구결과를 포스터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시한 발표자에게 주어진다. 현재 전남대병원 진료처장을 겸하고 있는 윤 교수는 이날 "세계적으로 처음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연구에 매진해 국

내 의료수준 뿐 아니라 전남대병원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통증학회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25개국에서 1000여명의 척추통증 전문가들이 참석, 척추통증의학에 대한 최신 지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그동안 통증을 다루는 세계적 학회는 많았지만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비꽃·민들레 수 놓은 가방 어때요

장성 드림빌 마을 '야생화 자수 동호회' 3일까지 전시회

농어촌 뉴타운 사업으로 조성된 장성 '드림빌' 마을의 '야생화 자수 동호회'(회장 김원숙) 회원들이 오는 3일까지 마을 복지회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 이번 전시회에는 제비꽃, 민들레, 패랭이 등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를 자수로 놓은 가방, 이불, 쿠션, 앞치마, 방석, 베개 등 다양한 제품과 작품이 선보였다. 일주일간 열리는 전시회에는 판매가 병행되는데, 전시 기간 판매대금의 일부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야생화 자수 동호회를 비롯한 드림빌 주민

들은 매년 보름행사와 아나바다 장터 등 각종 행사와 농가 일손돕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드림빌은 야생화 자수 동호회는 물론 탁구회, 독서 모임, 통기타 등 다양한 친목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마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드림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평가를 받아 최근 2016 미래창조 쿠능구촌 박람회 우수마을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언론인 박준수씨 시집 '푸른길 주점' 펴내

언론인 박준수(57·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씨가 다섯 번째 시집 '푸른길 주점'(문학들을 펴냈다. 광주문화재단 지원으로 발간된 이번 시집에는 일상의 삶과 사회통찰에 대한 시편들이 담겨 있다. 다섯 번째 시집인 만큼 시에 담긴 주제의식과 언어의 견고함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시집 표제를 '푸른길 주점'으로 정한 것은 경전선 폐선 철로에 조성된 푸른길 공원 주변 숲집이 모티브가 됐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동네 주막에 걸터앉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한잔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인생 건이 역과 같다는 의미다. 시인은 "과거 경전선이 나뉘던 자리에 푸른길이 만들어졌듯이 떠남과 기다림이 결국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